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바지교복에 대한 착용실태 및 인식

김성실 · 신혜원*

동국대학교-서울 교육대학원 · 동국대학교-서울 가정교육과*

The perception of girls'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on the usage of trousers as school uniform

Kim, Sung-Sil · Shin, Hye W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guk Univ. -Seoul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 -Seoul**

Abstract

The usage status of trousers as school uniform for girl'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the perception on trousers as school uniform were analyzed.

Students who wore 'skirts only' were the greatest and students who wore 'trousers only' were higher in the case of winter uniform than in summer uniform. The most popular reason to wear skirts was 'because most of their fellow students wore skirts' in both winter and summer. The main reason for wearing trousers was 'because it was easy to cope with changes in temperature' in winter and 'because it allowed more comfortable movements' in summer.

Students who wore trouser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wearing trousers as school uniforms. However, they showed a low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design and color of trousers. The students preferred slim and straight trousers, and black color with beige and blue being the next color.

Students in general had low level of recognition for the need to wear trousers. Students perceived trousers as being cold-proof and comfortable for physical activities. But they also perceived that trousers were not suitable for improving their appearances and expressing their characteristics. Especially, the students who wore trousers tended to think that trousers reduced their cares for their personal attire and that trousers were good for wearing after school, but the students who did not wear trousers were found to think contrary.

1) 교신저자: Shin, Hye Won, 26-3 Pil-dong, Jung-gu, Seoul 100-715, Republic of Korea

Tel: 02-2260-3415, Fax: 02-2260-1170, E-mail: hws@dongguk.edu

본 논문은 2010년도 석사학위논문물의 일부임

Key Words: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girls'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바지교복(trousers as school uniform), 만족(satisfaction), 필요성(need), 인식(perception)

I. 서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개화기부터 1982년까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성이 무시된 일률적인 교복을 착용하여 왔다. 그러나 1982년 1월 1일 교복 자율화 조치에 의하여 교복이 전면 폐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의 의복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교복 자율화는 활동적이고 기능적이며 개성존중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탈선행위 증가와 가계부담 증가 및 사복착用に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문교부에서 다시 교복 착용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기에 이르렀다(윤민옥, 2005).

한편 교육부는 1999년부터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양성평등 교육을 야심차게 추진하였다. 교과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수정하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처럼 제도적인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강요하는 상황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중에는 여학생의 바지교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여학생에게 바지교복을 허용하겠다는 질문에 학교행정이 전체의 72.3%가 찬성하였다. 찬성의 비율은 남녀 모두 70%이상의 응답으로 비슷했으나, 여자의 경우는 매우 찬성이라는 의견이 28.2% 매우 반대는 0%로 나타났으나 남자의 경우는 매우 찬성이 6.0%이고 매우 반대는 3.8%로 나타나 여자의 경우가 여학생들의 복장에 좀 더 융통성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여학교와 남녀공학을 비교해 본 결과 남녀공학에 비해 여학교의 학교행정이 여학생의 바지교복 착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2003년 교육정책기획관실의 여학생의 교복착용 현황 관련 보도 자료(임주희에서 재인용, 2004)에 따르면 전국 3678개 여자 중고교, 남녀공학 중고교 중 치마를 교복으로 택한 학교는 76.3%인 2816개 학교로 나타났다. 치마나 바지를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19.4%(714개교)로 나타났으며, 바지교복을 택한 학교는 0.6%인 22개교에 불과했다. 따라서 당시 교육부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기 초 여학생 교복을 결정할 때 학생들이 스스로 치마 또는 바지를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하고 여학생들에게 바지교복 착용을 권유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후 상황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교복은 디자인 면에서 많이 다양해졌으나 오늘날의 사회적 변화와 개방된 교육체제하에서 표현욕구가 다양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해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더욱이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의 획일적인 교복형태를 지양하고 패션화된 디자인과 기능적인 소재를 선호하면서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패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교복을 착용하게 되면 교복에 대한 불만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학생들은 교복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강하므로 학생들에게 스커트뿐만 아니라 바지도 선택할 수 있는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추위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동작에 제약이 있으며 허습 집중이나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스커트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바지교복에 대해서도 여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할 바지교복에 대한 연구가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고 본다.

교복은 청소년기에 가장 오랜 시간 착용하게 되는 의복으로써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다. 선행연구로는 여학생의 교복 디자인 선호도 및 개발에 대한 연구(조진숙, 1991; 유경숙, 1991; 김화순, 2001), 교복과 자유복에 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김윤희, 1991; 이수희, 1988; 김정희, 1990), 교복의 치수와 변형에 대한 연구(김혜정, 2001; 김덕하, 2004; 황진숙 외, 2002, 이소은, 2000) 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 스커트

교복에 관한 연구들이다.

바지교복에 대한 선행연구는 교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안인희, 1989; 유희경, 2007)에서 최초의 바지교복 형태와 착용 동기를 다룬 것이 있고, 여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임주희, 2004)에서 부분적으로 바지교복의 착의실태와 선호하는 스타일, 바지 길이, 색상만을 연구한 것이 있을 뿐이다. 즉, 바지교복을 주 대상으로 하여 바지교복에 대한 만족도나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양성평등,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 실용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바지교복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바지교복에 대한 인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바지교복 착용실태를 조사하고, 바지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봄, 스커트와 바지를 착용하는 집단 간에 바지교복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여학생들의 바지교복의 개선과 정착,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문헌고찰

1. 바지교복에 관한 연구

바지교복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교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안인희, 1989; 유희경, 2007)와 바지교복의 착의실태와 선호하는 스타일, 바지 길이, 색상에 대한 연구(임주희, 2004)가 있다.

교복 변천에 대해서 안인희(1989)와 유희경(2007)은 우리나라 여학생들의 바지교복의 시초는 몸빼로 정의하고 있다. 1940년대에 한국 학생에게도 전투태세를 갖춘 제복을 통일하여 착용하도록 하여 여학생들은 몸빼라는 작업복바지에 블라우스를 착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여학생들의 최초의 바지교복이라고 할 수 있다.

임주희(2004)의 여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학생들이 스커트만 착용하는 학교는 전체의 76.3%로 나타났고, 스커트와 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하는 학교는 19.4%, 바지만 착용하는 학교는 0.6%로 나타났다. 하의교복으로는 스커트(85.5%)에 비해 바지(14.5%)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바지교복은 회색의 스트레이트 스타일의 slack 길이로 나타났으며, 스커트가 활동성이 불편하다는 것이 바지교복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하였다.

2. 스커트교복에 관한 연구

스커트교복에 대한 연구는 크게 치수, 변형, 만족도, 선호하는 디자인 및 태도를 살피는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교복의 치수에 대해서 교복업체마다 치수체계에 대한 제품치수가 달라 교복선택을 할 때 불편하며 맞음새에도 불만족하고 있었다(김덕하, 2004). 이를 위해 이소은(2000)과 김혜정(2001)은 여자 중·고등학생은 개인에 따른 성장속도의 차이가 크므로 많은 학생이 속하는 키의 범위에서는 가슴둘레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치수규격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복 변형에 대해 김혜정(2001)은 여고생들의 절반 이상이 스커트 변형을 하는데 특히, 스커트의 엉덩이둘레, 길이와 밑단둘레에서 변형을 가장 많이 하며 치수와 연관되어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므로 이 부위의 패턴 제작에 신경을 써야하며 세부적인 길이항목과 둘레항목에 따라 세분화된 치수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스커트의 폭 수정 및 디자인 개발 등의 개선점을 모색해야 하며 바지의 병행착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스커트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의 연구(김화순, 2001; 임주희, 2004; 조진숙, 1990; 유경숙, 1991)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활동하기 불편하다, 디자인과 색상, 교복 상하길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등을 들었다. 임주희(2004)는 여중생과 여고생의 선호하는 디자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 그들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복 만족도가 높

았으며, 만족도의 요인 중 여학생은 심미성과 신분상징성 요인을, 남학생은 기능성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은(2001)은 교복 만족도 요인으로 기능성과 심미성 및 유행성이 중요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교복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교복의 디자인과 색상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조진숙, 1990; 유경숙, 1991) 타이트한 스커트와 활동적인 느낌을 주는 청색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동복으로 스커트는 온도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스커트 외에 여벌의 바지착용을 원하고 있었다.

남녀 고등학생의 의복행동은 교복과 자유복 착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나 성역할 태도에서는 자유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보다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김정희, 1990). 또한 이수희(1998)와 김윤희(1991)는 강북이 강남보다, 교복착용집단과 여자중학교가 교복을 더 선호하며 선호이유는 학생 신분에 알맞고, 단정해 보이고, 옷에 신경을 덜 쓰게 되며, 학습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교복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스커트가 활동에 불편하고, 온도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교복은 변화가 없어서 싫증나며, 자유복은 편하고 활동적이며 미적 감각 및 개성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1)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의 바지교복 허용 실태를 알아본다.
- 2)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바지교복 착용실태와 이유를 알아본다.
 - 2-1. 동복과 하복의 하의 착용실태를 알아본다.
 - 2-2. 동복과 하복에서 스커트를 착용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 2-3. 동복과 하복에서 바지를 착용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 3)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바지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다.

- 3-1. 동복과 하복의 바지교복 착용 만족도를 알아본다.
- 3-2. 동복과 하복의 바지교복 디자인 만족도와 선호하는 디자인을 알아본다.
- 3-3. 동복과 하복의 바지교복 색상 만족도와 선호하는 색상을 알아본다.
- 4)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바지교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 4-1. 바지교복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 4-2. 바지교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 4-3. 바지교복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의 바지교복 허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참고하여 각 학교의 생활지도부장선생님과 전화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바지교복의 착용실태와 만족도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바지교복을 허용하는 16개 중학교와 34개 고등학교 중 영파여자중학교, 상일여자중학교, 영파여자고등학교, 무학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2009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750부가 배부되었고, 730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10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720부가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설문지는 선행연구(윤민옥, 2005)를 참고하여 본 조사목적에 맞게 작성하여 전문가와 교사의 검토를 받아 학생들에게 예비조사를 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표 1>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바지교복에 관한 인식 및 필요성, 동복과 하복의 하의착용실태, 만족도, 선호도 그리고 바지교복의 개선방안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리커트

〈표 1〉 설문지 구성

영역	설문내용	문항 형태	문항 수
일반사항	재학학교, 학년	선택형	2
바지교복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바지교복은 활동하기에 편하다	리커트식	1
	바지교복은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 준다	리커트식	1
	바지교복은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쓰게 한다	리커트식	1
	바지교복은 추위에 견디기 좋다	리커트식	1
	바지교복은 나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다	리커트식	1
	바지교복은 나의 외모를 돋보이게 한다	리커트식	1
	바지교복을 입으면 여자다운 매력이 줄어든다	리커트식	1
	바지교복을 입는 것은 피로감을 주지 않는다	리커트식	1
	바지교복은 방과 후에 입고 다니기 좋다	리커트식	1
동복과 하복 하의 착용실태, 바지교복 만족도 및 선호도	바지교복의 필요성	리커트식	2
	동복과 하복의 하의 착용 실태	선택형	2
	스커트 착용 이유	선택형	2
	바지교복 착용 이유	선택형	2
	바지교복 착용 만족도	리커트식	2
	바지교복 디자인 만족도	리커트식	2
	바지교복 색상 만족도	리커트식	2
	선호하는 바지교복 디자인	선택형	2
선호하는 바지교복 색상	선택형	2	
개선방안	바지교복에 대한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서술형	1
총 문항 수			30

척도를 사용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대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IV. 결과 및 고찰

1.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의 바지교복 허용 실태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는 Duncan's Multiple Test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바지교복을 허용한 학교가 <표2>와 같다. 서울시 여자 중학교 총 45개 학교 중 바지교복을 허용하는 학교는 16개교(36%)로 바지와 스커트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도록 하고 있었다. 스커트만 허용하는 학교는 7개(15%)이었다. 바지교복을 허용한 16개 학교의 바지교복 착용 시기를 살펴본 결과, 동복과 하복 모두 허용하는 학교는 6개이고, 나머지 10개 학교는 동복만 허용하고 있었다. 즉, 동복에만 바지교복을 허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하복에는 생활 티셔츠를 학교에서 지정하여 체육복 바지와 함께 학교 안에서 착용이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바지교

복 디자인 지정유무와 구매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디자인이 지정되어 있는 6개 학교는 교복업체와 관련하여 바지교복을 판매하고 있었고, 디자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10개 학교는 일반 남자 바지교복 디자인에 색상만 지정하여 자유구매 하도록 하고 있었다.

서울시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총 59개 중 바지교복을 허용한 학교는 34개교(43%)이었다. 바지교복의 착용 시기를 살펴보면 중학교와 달리 동복과 하복 모두 바지교복을 허용하는 학교가 25개로 동복만 허용하는 9개 학교보다 오히려 많았다. 디자인 지정유무와 구매방법에서는 중학교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시도별 여학생의 하의교복 착용현황을 살펴본 임주희(2004)에 따르면 그 당시 서울에서 바지교복 허용 학교가 34개이던 것이 2009년 현재는 50개 이상인 것으로 볼 때 2004년에 비해 여학생들의 바지교복 착용이 활성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 바지교복 허용 현황

	N(%)	
	중학교	고등학교
바지 허용	16(36)	34(43)
스커트만 허용	7(15)	14(25)
특수경우만 바지 허용	8(17)	2(12)
기타(정보 미공개)	14(32)	9(20)
계	45(100)	59(100)

2.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바지교복 착용실태와 착용이유

1) 동복과 하복의 하의 착용실태

동복과 하복에서 바지교복을 착용하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 <표 3>에 나타나있다. 동복의 경우 ‘스커트만 착용’이 8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바지만 착용’, ‘스커트와 바지 함께 착용’ 순이었다. 하복의 경우도 ‘스커트만 착용’이 86.1%로 가장 많았으며, ‘스커트와 바지 함께 착용’, ‘바지만 착용’ 순이었다. 따라서 동복과 하복 모두 ‘스커트만 착용’이 가장 많았고, ‘바지만 착용’은 하복보다 동복에서 많게 나타나 추운 겨울에 더 많이 착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동복과 하복에서 스커트 착용이유

동복과 하복으로 스커트만을 착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커트 착용이유를 살펴본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먼저 동복의 경우 ‘다수의 친구들이 스커트를 많이 입어서’라는 응답이 63.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활동이 편리해서’, ‘여성스러워 보여서’,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개성표현을 위해서’, ‘온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서’ 순이었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로 스커트를 많이 입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동복과 하복에서 스커트를 착용하는 이유

스커트를 착용하는 이유	N(%)	
	동복	하복
다수의 친구들이 스커트를 많이 입어서	381(63.4)	308(49.8)
활동이 편리해서	87(14.5)	80(12.9)
여성스러워 보이니까	87(14.5)	61(9.8)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30(4.8)	18(2.9)
개성표현을 위해서	13(2.2)	12(1.9)
온도변화에 대처 할 수 있어서	4(0.7)	60(9.5)
바지교복이 없으니까	0(0.0)	82(13.2)
계	602(100.0)	620(100.0)

하복의 경우도 ‘다수의 친구들이 스커트를 많이 입어서’라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바지교복이 없

〈표 3〉 동복과 하복의 하의 착용실태

	N(%)			
	스커트만 착용	스커트와 바지 함께 착용	바지만 착용	계
동복	602(83.6)	53(7.4)	65(9.0)	720(100.0)
하복	620(86.1)	72(10.0)	28(3.9)	720(100.0)

으니까', '활동이 편리해서', '여성스러워 보여서', '온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서',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개성표현을 위해서' 순이었다. 하복으로 스커트를 착용하는 이유 중 '바지교복이 없으니까'가 13.2%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하복에는 바지교복을 허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기 때문으로 하복에도 바지교복이 허용되면 바지를 입을 학생이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동복과 하복의 스커트 착용이유를 비교해 보면, '다수의 친구들이 스커트를 많이 입어서'가 동복이나 하복 모두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하복에서 '바지교복이 없어서'를 제외하면 동복과 하복 모두 '활동이 편리해서', '여성스러워 보여서' 스커트를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복의 경우 '온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서'가 9.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름에는 바지보다 스커트가 더 시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3) 동복과 하복에서 바지 착용이유

동복과 하복에서 바지만을 착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지 착용이유를 살펴본 결과가 <표 5>에 나타나있다. 동복의 경우 바지를 착용하는 이유는 '온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활동이 편리해서',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쓸 수 있어서',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개성표현을 위해서', '다수의 친구들이 바지를 많이 입어서' 순이었다. 따라서 겨울에 바지를 착용하는 이유는 온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로 입을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복의 경우는 '활동이 편리해서'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온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서', '개성표현을 위해서', '옷차림의 신경을 덜 쓸 수 있어서',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다수의 친구들이 바지를 많이 입어서' 순이었다. 따라서 여름에 바지를 착용하는 이유는 활동이 편리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복과 하복을 비교해 볼 때, 동복은 온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서 여름에는 활동이 편리해서가 주된 이유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바지교복은 온도변화에 대처하기 쉽고 활동이 편리해서 입을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주희(2004)의 연구에서 교복이 불만족스러운 가장 큰 이유가 활동하기가 불편하다였는데 본 연구결과 바지 착용이유가 활동이 편리해서이므로 바지교복을 착용한다면 이러한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 5> 동복과 하복에서 바지를 착용하는 이유

바지를 착용하는 이유	N(%)	
	동복	하복
온도변화에 대처 할 수 있어서	30(46.1)	8(28.6)
활동이 편리해서	15(23.1)	13(46.4)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쓸 수 있어서	8(12.3)	2(7.1)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8(12.3)	2(7.1)
개성표현을 위해서	2(3.1)	2(7.1)
다수의 친구들이 바지를 많이 입어서	2(3.1)	1(3.6)
계	65(100.0)	28(100.0)

3.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바지교복에 대한 만족도

1) 동복과 하복의 바지교복 착용 만족도

동복과 하복으로 바지교복을 착용하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착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가 동복은 3.47(0.824), 하복은 3.29(0.856)로 만족도가 3.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 바지교복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동복과 하복의 바지교복 디자인 만족도와 선호하는 디자인

동복과 하복의 바지교복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하는 디자인을 살펴본 결과가 <표 6>과 같다. 동복과 하복 모두 바지교복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3.0이하로 나타나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지교복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바지 디자인으로 동복과 하복 모두 '바지통이 좁은 스타일(스키니형)'을 가장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스트레이

〈표 7〉 동복과 하복에서의 바지교복 착용 여부에 따른 바지교복의 필요성

M(S.D.)					
	전체	스커트만 착용	스커트와 바지 함께 착용	바지만 착용	F값
동복	2.87(1.162)	2.69(1.036)C	3.60(1.044)B	4.12(0.696)A	74.932***
하복	2.73(1.089)	2.59(1.045)B	3.55(0.983)B	3.86(0.651)A	43.277***

A, B, C : Duncan's Multiple Test, *** : p<0.001

트 스타일(일자형)', '바지통이 넓은 스타일(통바지형)', '바지 끝이 나팔모양 스타일(나팔바지형)' 순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바지통이 좁은 스타일(스키니형)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는 현재 유행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스트레이트 스타일도 많은 여학생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주희(200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스키니형이나 일자형 바지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동복과 하복의 바지교복 색상 만족도와 선호하는 색상

바지교복의 색상 만족도와 선호하는 색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동복과 하복 모두 만족도가 3.0 이하로 색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임주희(2004)와 일치하는 결과로 바지교복 색상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색상으로 동복과 하복 모두 검정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커트와 바지를 묶어서 함께 선호하는 색상을 조사한 결과 회색으로 나타난 임주희(2004)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바지교복 선호색으로 검정색 다음으로 베이지계열과 청색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복과 하복을 비교해 볼 때 동복에서는 밤색을 회색보다 선호하였으나 하복에서는 회색을 밤색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절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었다.

4.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바지교복에 대한 인식

1) 바지교복의 필요성

〈표 6〉 동복과 하복의 바지교복 디자인과 색상 만족도와 선호하는 디자인과 색상

		동복	하복
디자인 만족도 M(S.D.)		2.52(0.931)	2.44(0.903)
선호하는 디자인 N(%)	바지통이 좁은 스타일(스키니형)	69(58.5)	49(49.0)
	스트레이트 스타일(일자형)	37(31.4)	37(37.0)
	바지통이 넓은 스타일(통바지형)	9(7.6)	10(10.0)
	바지 끝이 나팔모양 스타일(나팔바지형)	3(2.5)	4(4.0)
	계	118(100.0)	100(100.0)
색상 만족도 M(S.D.)		2.42(0.999)	2.60(0.995)
선호하는 색상 N(%)	검정색	37(31.4)	32(32.0)
	베이지계열	23(19.5)	24(24.0)
	청색계열	20(16.9)	20(16.9)
	회색계열	12(10.2)	16(16.0)
	밤색계열	19(16.1)	7(7.0)
	자주색계열	6(5.1)	3(3.0)
	녹색계열	1(0.8)	1(1.0)
계	118(100.0)	100(100.0)	

바지교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바지교복의 필요성을 동복과 하복 모두 보통보다 낮게 인식하였다. 바지교복 착용여부에 따라 바지교복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동복과 하복 모두 바지만 착용하는 학생, 스커트와 바지 모두 착용하는 학생, 스커트만 착용하는 학생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바지만 착용하는 학생은 바지교복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스커트만 착용하는 학생은 바지교복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바지교복 착용을 위해서는 스커트만 착용하는 학생들에게 바지교복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2) 바지교복에 대한 인식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바지교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가 <표 8>에 나타나 있다. 바지교복에 대한 인식 중 ‘추위에 견디기 좋다’와 ‘활동하기에 편하다’는 평균 3.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즉, 바지교복은 추위에 견디기 좋으며, 활동하기에 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문항은 3.0 미만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바지교복을 입는 것은 피로감을 주지 않지 않으며, 바지교복을 입으면 여자다운 매력이 줄어들지 않으며, 바지교복은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 주지 않으며,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쓰게 하지 않으며, 방과 후에 입고 다니기 좋지 않으며, 나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지 않고, 나의 외모를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바지교복은 나의 개

성을 잘 표현할 수 있다’와 ‘바지교복은 나의 외모를 돋보이게 한다’는 2.5 이하로 낮게 나와 바지교복이 여학생들의 개성표현에는 부적당함을 나타내었다.

바지교복에 대한 인식을 동복과 하복 모두에서 스커트만 착용하는 집단과 바지만 착용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입으면 여자다운 매력이 줄어든다’와 ‘입는 것은 피로감을 주지 않는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식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바지만 착용하는 집단이 스커트만 착용하는 집단보다 바지교복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추위에 견디기 좋다’와 ‘활동하기 편하다’는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바지교복 착용집단이 스커트 착용집단보다 더 추위에 견디기 좋으며 활동하기 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쓰게 한다’와 ‘방과 후에 입고 다니기 좋다’는 바지를 착용하는 집단은 그렇게 생각하나 스커트를 착용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 준다’, ‘나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다’, ‘나의 외모를 돋보이게 한다’는 두 집단 모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스커트를 착용하는 집단이 바지를 착용하는 집단보다 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바지교복은 추위에 견디기 좋으며 활동하기에 편하다고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바지를 착용하는 집단은 스커트만 착용하는 집단보다 바지교복이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쓰게 하며, 방과 후에 입고 다니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스커트만 착용하는 학생들에게도 이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

<표 8> 바지교복 착용여부에 따른 바지교복에 대한 인식

바지교복에 대한 인식	전체	스커트만 착용	바지만 착용	t값
추위에 견디기 좋다	3.73(0.939)	3.68(0.927)	4.32(0.748)	-3.405***
활동하기에 편하다.	3.46(0.998)	3.36(0.976)	3.92(0.954)	-2.825***
입는 것은 피로감을 주지 않는다.	2.88(0.985)	2.81(0.962)	2.72(0.792)	0.475
입으면 여자다운 매력이 줄어든다.	2.85(1.086)	2.77(1.101)	2.92(0.702)	-0.989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 준다.	2.73(1.031)	2.59(0.999)	2.96(0.735)	-2.401*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쓰게 한다.	2.72(1.103)	2.59(1.075)	3.36(0.810)	-3.546***
방과 후에 입고 다니기 좋다.	2.65(1.192)	2.53(1.164)	3.04(0.978)	-2.168*
나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다.	2.36(0.947)	2.29(0.931)	2.96(0.935)	-3.552***
나의 외모를 돋보이게 한다.	2.06(0.885)	1.95(0.823)	2.76(0.926)	-4.807***

* : p<0.05, *** : p<0.001

로 변화시키면 바지착용이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된다.

3) 바지교복에 대한 개선방안

바지교복에 대한 개선이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으나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디자인과 색상을 예쁘고 여성스럽게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바지교복에 대해 홍보를 해야 한다’ 17.4%, ‘따뜻하고 편안하고 사이즈가 잘 맞아야 한다’ 16.6%, ‘상의 교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9.9%, ‘하복으로는 치마바지나 반바지로 해야 한다’ 7.9%, ‘바지교복에 대한 이상한 시선을 없애야 한다’ 3.7%,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0.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바지교복 착용을 권유하려면 바지교복의 디자인과 색상뿐만 아니라 기능성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며 바지교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바지교복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바지교복 착용실태와 바지교복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을 살펴보았다.

서울시 104개 여자 중고등학교 중 48%가 바지교복 착용을 허용하였다. 바지교복 허용학교의 경우 바지교복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게 되어 있으며, 동복과 하복을 모두 허용하는 학교와 동복만 허용하는 학교로 나누어진다. 디자인이 지정된 학교는 교복업체와 제휴를 맺어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고,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일반 일자형 남자교복 바지 디자인으로 통일하고 색상만 지정하여 자유구매 하도록 했다.

하의 착용실태는 동복과 하복 모두 ‘스커트만 착용’이 가장 많았으며, ‘바지만 착용’은 하복보다 추위에 민감한 동복에 더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스커트를 착용하는 이유는 동복과 하복 모두 ‘다수의 친구들이 스커트를 많이 입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여학생들이 동조성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복의 경우 ‘바지교복이 없어서’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하복에도 바지교복을 허용하면 바지교복의 착용이 늘어날 것임을 나타낸다. 바지교복을 착용하는 이유는 동복은 ‘온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서’, 하복은 ‘활동이 편리해서’가 주된 이유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바지교복은 온도변화에 대처하기 쉽고, 활동이 편해서 입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바지교복 착용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지교복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동복과 하복 모두 낮게 나타나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스타일로 ‘바지통이 좁은 스타일(스키니형)’과 ‘스트레이트 스타일(일자형)’이 높게 나타났다. 과반수이상이 바지통이 좁은 스타일(스키니형)을 원하고 있어서 여학생들이 유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지교복 색상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색상은 동복과 하복 모두 검정색이었고, 다음으로 베이지계열과 청색계열을 선호하였다. 또한 동복에서는 밤색계열을 회색계열보다 선호하고 하복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나 계절에 따라 선호하는 색상에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들은 바지교복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바지교복 착용 여부에 따른 집단 간에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동복과 하복 모두 바지교복을 착용하는 집단은 바지교복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스커트만 착용하는 집단은 바지교복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어서 바지교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지교복의 필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바지교복에 대해서는 여학생들 모두 추위에 견디기 좋으며, 활동하기에 편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외모를 돌보이게 하거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바지를 착용하는 집단이 스커트를 착용하는 집단보다 바지교복이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쓰게 하고, 방과 후에 입고 다니기 좋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 바지착용이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된다.

바지교복의 개선방안으로 디자인, 색상 및 기능성의 개선, 홍보의 필요성을 들어 여학생들의 바지교복 착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바지교복의 디자인과 색상뿐만 아니라 기능성

도 고려하여 만들어야 하며 바지교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바지교복은 추위에 대처하기 좋고 활동성도 있으며 양성평등 사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입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하복에 바지교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바지교복의 허용여부는 학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가능하면 허용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지교복의 디자인, 색상 그리고 소재를 개선하여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동복에는 따뜻한 소재를 하복에는 시원한 소재를 선택하여 온도변화에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스판덱스와 같은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여 활동성을 높이고, 하복으로는 치마바지나 반바지와 같은 디자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지교복을 착용하는 집단이 스커트만 착용하는 집단에 비해 바지교복은 온도변화에 대처하기 쉽고, 활동이 편리하며,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스커트만 착용하는 집단에게 홍보하여 바지교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여학생들의 바지교복 착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바지교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지교복의 착용을 높여 여학생들의 쾌적한 의생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4개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로 남녀공학의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바지교복에 대한 인식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녹색 성장과 에너지 자원 아껴쓰기의 일환으로 내복 입기 운동과 함께 바지교복 착용을 홍보하여도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덕하(2004). 여자중학생 교복설계를 위한 체형별 치수체계 및 성장여유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윤희(1991). 여자 중학생의 교복에 관한 태도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90). 서울시 남녀 고교생의 교복자유복 착용에 따른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의 차이.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화순(2001). 여중생의 교복 디자인 만족도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2001).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 변형과 치수만족도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인희(1989). 우리나라 男女 中等學校 校服變遷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경숙(1991). 여고생의 교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263-270.
- 유희경(2007). 우리나라 여고생 교복의 변천에 대한 연구. 목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민옥(2005). 여자고등학생의 교복에 관한 연구(대전지역 여자고등학생 추동복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은(2000). 남녀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교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 시내 남녀공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희(1988). 女高生 校服과 自由服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주희(2004). 여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하는 교복디자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숙(1991). 교복 디자인 개발 연구(여고생 추동용 교복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진숙·안명화·용유진·유승연(2002).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 이미지 선호와 교복 변형행동의 비교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3), 243-247.
- 정해숙·정경아·윤명옥(2003). 교사의 양성평등의식 조사 및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국문요약>

바지교복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바지교복 착용현황과 바지교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하의교복으로 동복과 하복 모두 ‘스커트만 착용’이 가장 많았으며, ‘바지만 착용’은 하복보다 동복에서 높게 나타났다. 스커트를 착용하는 이유는 동복과 하복 모두 ‘다수의 친구들이 스커트를 입어서’가 가장 많았고, 하복의 경우 ‘바지교복이 없어서’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바지교복은 동복은 ‘온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서’, 하복은 ‘활동이 편리해서’ 주로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교복 착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지교복 디자인과 색상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바지통이 좁은 스타일’과 ‘스트레이트 스타일’의 디자인을 선호하고, 색상은 동복과 하복 모두 검정색, 다음으로 베이지와 청색계열을 선호하였다.

여학생들은 바지교복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동복과 하복 모두 바지를 착용하는 집단은 필요성을 높게, 스커트만 착용하는 집단은 낮게 인식하였다. 바지교복은 추위에 견디기 좋으며 활동하기에 편하지만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바지를 착용하는 집단은 스커트만 착용하는 집단보다 바지교복이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쓰게 하고, 방과 후에 입고 다니기 좋다고 하였다. 바지교복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디자인과 색상의 개선, 기능성의 증가, 홍보의 필요성 등이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10년 2월 18일, 논문심사일자: 2010년 2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3월 10일